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2. 4. 19.(화), 10: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2	박영미*, 임동훈**, 정혜중, 김세완, 배성아, 유제욱, 강은솔, 황진선, 남상택, 이정화, 오숙환, 김정권	고민희(간사)

\* 의장 \*\*부의장

### 4. 안건

- 2021학년도 결산안 자문

### 5. 개회선언

- 가.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운영세칙 제2조 ‘대학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2월에 개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가 4월 정기회임을 안내하고, 전체 평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평의원들에게 3월 말 변경되어 회의에 참석한 강은솔 학생 평의원을 소개하고 전 회의 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고 대학원 학칙개정에 관한 심의가 있었음을 안내하다.

### 6. 안건 심의

- 2021학년도 결산안 자문

- (1) 의장은 2021학년도 결산안 자문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진행 순서에 따라 이화의료원 및 본교 기획처에서 배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예정임을 안내하다.

(배석자: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

- (2) 의장은 의료원 배석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고, 이대목동병원 재무팀장은 이화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의 2021학년도 결산안 주요 내용을 요약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다.

- (3) 임동훈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비유동성부채 은행차입금 125.8억원 감소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4)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배부자료의 감소된 비유동성부채 은행차입금은 실제 상환된 것이 아니라, 1년 내 상환해야하는 금액을 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과목을 전환한 것으로, 2021년 유동성장기부채 290.7억에 125.8억이 포함되어있다고 답하다. 이어 은행차입금 원금은 재무상태표 상 부채로 표현되고 은행차입 관련된 이자비용은 의료외비용으로 분류되어 2021년의 이자비용 140.6억에 은행차입금 및 리스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있음을 설명하다.
- (5) 김세완 평의원은 원금 상환 시기에 대해 질의하다.
- (6)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제작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2021년도 원금상환금액은 62억으로 유동성장기부채에 포함되어있다고 답하다.
- (7) 김세완 평의원은 향후 원금을 일정금액으로 상환예정인지 상환금액을 증가할 예정인지 질의하다.
- (8)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5년 거치 후 10년, 20년 상환하는 상품으로 원금균등상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하다.
- (9) 김세완 평의원은 고정금리인지 질의하고 향후 이자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의 우려를 표하다.
- (10)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대부분 변동금리임을 설명하고, 코로나로 인해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향후 이자비용이 증가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하다.
- (11) 남상택 평의원은 2020년 약145억, 2021년 약140억 정도의 이자비용이 지출되었고 올해도 135억 혹은 금리인상으로 그 이상의 이자비용이 예상됨을 말하며 차입금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원의 대처계획을 질의하다.
- (12)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당초 차입금 대비 2020년 54억, 2021년 63억 전체 약120억의 원금을 상환하였고, 올해 약125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답하다.
- (13) 김세완 평의원은 매년 약120억의 원금을 상환하고, 약135억의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10억~20억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다.
- (14) 이대서울병원 재무팀장은 그럴 수도 있다고 동의하다.
- (15)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려하는 이자비용의 증가 등이 의료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오히려 이자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향후 기준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의료외수익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2022년 기존 163병상에서 877병상으로의 확장개원을 하게 되었으므로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16) 유제욱 평의원은 목동병원 관련하여 과거 상급종합병원 시기의 수익과의 비교설명을 요

청하다.

- (17)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의 경우 과거 상급종합병원 수익으로의 회복 수준이 아니라 2017년 대비 약400억 이상 의료수익이 증가되었고, 예산도 800억을 늘린 상황이며 전체매출에 있어 서울병원보다 높은 상태라고 답하다.
- (18) 김정권 평의원은 당기수익부분에 코로나로 인한 의료수익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다.
- (19)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코로나로 인한 수익은 모두 의료외수익으로 포함된 것임을 설명하며 현재 의료원 경영개선 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의료수익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답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의료외수익으로 올해 목동병원 206억, 서울병원 100억원을 예산에 책정하였음을 설명하고 해당 의료외수익은 평의원들이 우려하는 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20) 김정권 평의원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당기순이익에는 감가상각비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등을 통한 실제 유동성, 현금흐름 등의 대안이 보완되기를 요청하다.
- (21)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김정권 평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교원확충으로 인해 점차 의료수익이 개선될 것이며, 100병상 당 38억원의 목표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171병상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상의 수익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다.
- (22) 정혜중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병상 수가 877병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를 질의하다.
- (23)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병원의 경우 1,014병상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답하다.
- (24) 정혜중 평의원은 서울병원의 2020년 대비 2021년 의료수익 증가분 약500억원이 병상증가로 인한 것인지, 2022년에도 서울병원의 병상수가 증가하므로 목동병원 정도의 의료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25)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서울병원과 목동병원은 기본 수가차이가 5%있고, 200명의 전공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다고 답하다. 이어 서울병원의 경우 올해 5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년차 전공의가 모두 채워질 예정이며 2026년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목동병원보다 서울병원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며 2021년 서울병원의 인건비가 매출대비 45%로 안정화에 접어들어, 병상수 확대에 따른 수익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26) 김세완 평의원은 의대교수 인건비의 본교 전입 현황에 대해 질의하다.
- (27)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년부터 165명의 임상전임교원에 대한 약178억의 전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답하다.
- (28) 김세완 평의원은 관련 내용이 문서상 약속된 내용인지를 질의하다.
- (29)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전출금을 학교에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료원 임상전임교원들의 임금을 학교로 전출해왔으며 신생아사태 등으로 인건비의 전출을 유예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2021년에도 전출금을 다른 형태로 학교에 지급하였다고 말한다. 의과대학 이전으로 목동병원 내 의과대학이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150억원의 비용을 학교에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전출금 대신 처리했으며 내년부터는 순수한 전출금의 방식으로 이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다.

- (30) 김세완 평의원은 의료원에서 본교로의 전출여부의 옳고 그름을 평의원회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을 반박하다.
- (31)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초 학교의 우려와 달리 전출금의 유예 등 학교의 협조로 양병원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전출금도 차차 지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답하다.
- (32) 유제욱 평의원은 많은 논의와 검토 후 결정된 양병원 체제임을 한 번 더 설명하며, 실제 양병원 체제를 운영한 결과 시너지효과가 어떤지 질의하다.
- (33)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양병원 체제를 운영하는 시너지효과 중 가장 큰 부분은 목동과 서울 교차진료를 통해 부족한 교원을 충당하고 있는 점과 전공의 수련이나 학생교육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며, 그동안 의과대학 부속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제대로 수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을 말한다. 학교의 재정지원으로 의과대학 건물이 신축되었고 기숙사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연구공간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목동병원 단일체제 일 때 2,000억이던 의료수익이 현재 6,000억으로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고, 고정비용이 같은 상황에서 교원수를 늘려 의료수익을 더 확대해 나간다면 이화여대 브랜드 가치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추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한다.
- (34) 임동훈 평의원은 의료원의 많은 노력으로 수익증가를 이루어냈다는 결과는 인정하며, 서울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유제욱 평의원의 질의는 이화의료원에서 양병원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양병원체제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향후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35) 의장은 개원한지 2년 반 정도 경과된 서울병원의 수익구조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인력충원이 계속되면서 인건비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외래나 입원수익에 대한 기대치와 인력증가 예상치를 질의하다.
- (36)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020년 목동 50.5%, 서울 49.3% 의료원 전체 49.9%였던 인건비 비율이 작년 목동병원의 경우 45%, 서울병원은 46%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고정적으로 투입되었던 인건비가 상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비전임교원의 임금수준 및 복리 등을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하여 충원하려고 노력 중이며 이는 의료원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생각한다고 답하다.

- (37) 김정권 평의원은 작년 초 수립한 예산 계획과 비교하여 결산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인지를 질의하다.
- (38) 이화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은 당초 계획에 비해 11%씩 증가했으며 의료원의 연평균 성장률은 10%씩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것을 상회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률과 수가상승률을 잡아서 보수적으로 7%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답하다.
- (39) 의장은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 의료원의 2021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배석자: 기획처장, 예산팀장, 회계팀장)

- (40) 의장은 학교 배석자에게 안전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의 설명 중 목동병원 내 의학관 건물은 병원건물이 아닌 의과대학 건물이었으며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건물 시가를 반영하여 158억원으로 5년 분할 매각의 형태로 진행된 부분임을 바로잡고 2021학년도 결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다.
- (41) 임동훈 평의원은 의료원의 결산안 자문 시 김세완 평의원의 의견을 언급하며 학교 교비 회계의 수입은 학생 등록금이 대부분인데 학교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료원에서 수익을 학교로 전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본교 퇴직교원이 많음에도 학교에서 신입교원 확충에 있어 의과대학 신입교원 확충에 더 치중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42) 기획처장은 학생 등록금은 본교 수입의 약50%정도를 차지하며, 학생 1인당 교육비수준은 등록금 대비 약200% 수준임을 말하고, 본교소속 임상교원의 급여를 의료원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으나 학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부속병원인 의료원의 수익 중 상당부분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서울병원 개원 후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약180억원 정도의 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다. 향후 의료원의 수익이 증가되어 학교로의 더 많은 전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교와 의료원 간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또한 교원 충원과 관련하여 신설 병원의 경우 교원 없이는 의료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의 교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건비 지출에 있어 의대만을 위한 인건비 지출이 아님을 말하며, 작년과 올해 본교 각 학과 신입교수 충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4~5년 내 퇴직하는 교원수를 예상하여 우수한 교원임용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하다.
- (43) 김세완 평의원은 의료원과 학교 간 전출금 관련하여 구두 협의가 아닌 서면 약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2009년 이후 전임교원 임금이 동결된 상황으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임금이 삭감된 효과이고 이로 인해 신규교원 충원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며 기획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임금인상에 대한 노력유무에 대해 질의하다. 또한 감가상각 비용이 매년 동일하게 책정된 것과 관련하여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기금에서 지출된 원금보존기금 인출이 학교 예산으로 사용된 것인지 질의하다.

- (44) 기획처장은 의료원과 학교 간 전출금 관련하여 의료원에 당부하고 있으며, 내년 의료원으로부터 전입이 되면 평의원들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 말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학교 재정 악화로 인하여 적극적인 임금인상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작년 급량비 부분은 정상화 되었다고 설명하다. 원금보존기금은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임의기금으로 이관하여 학교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하다. 아울러 2021학년도 결산상 기금이 43억원 늘어났으며 1인 등록금 대비 지출비율은 약200%을 유지하는 한편 기부금 증가로 인하여 기금 적립액이 증가된 것임을 말한다. 또한 올해는 학관 공사로 인해 약200억원의 기금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한다.
- (45) 배성아 평의원은 2021년 원금기금에서 인출하여 임의기금으로 이관된 169억원의 상세항목과 임의기금 중 건축기금부분의 기타건축공사 8억원의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의기금의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원금기금에서 이관하여 사용한 이유를 질의하고, 학관 공사와 관련하여 기부금 수입과 기금인출 등 향후 재원확보 방법과 당초 280억원의 예산대비 현재의 지출규모 및 지출스케줄을 추가 질의하다. 또한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그간 투자해왔던 교육 인프라와 학생지원 뿐만 아니라 우수 교원과 직원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청하다.
- (46) 기획처장은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2021학년도 기금부분에 있어 정상화를 이룬 것에 교원과 직원의 임금동결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인프라와 학생지원 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이 학교의 기본 주체라는 점에 공감하고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하다. 이어 학관 공사와 관련한 재원관려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건축에 관련된 기부금으로 일부를 조달하고, 적립된 건축기금에서 나머지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초 예산이었던 280억원 중 현재 64억원이 지출되었고 향후 216억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학관공사 기부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입과 인출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하다.
- (47) 예산팀장은 원금기금에서 인출하여 동일목적의 특정목적기금으로 이관 후 학교 목적사업에 사용을 했고, 임의기금의 특정목적기금 356억원에 169억원이 포함되어 인출된 것이라고 답하며, 임의기금 잔액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김준희 기부금의 경우 용도 및 기금의 목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금이고 향후 목적이 정해지면 인출예정이며,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임의기금은 모두 인출하였다고 답하다. 이어 임의기금 중 기타건축공사 8억원은 공사비용의 성격이 아닌 자본적지출 성격으로, 엘리베이터 공사처럼 건물로 계상되는

부분임을 설명하고, 김세완 평의원이 질의했던 감가상각비 관련하여 작년과 올해 모두 학 관 외 건설 중인 자산이 없는 동일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동일함을 부연설명 한다.

- (48) 김정권 평의원은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방세 관련 세금부분의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다.
- (49) 예산팀장은 추경예산 책정 당시 지방세 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등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결산시 확정된 고지서를 통보받지 못 하였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고 올해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답하다.
- (50) 김정권 평의원은 발생주의는 당기에 일어난 활동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금액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설명하고, 목동의학관 매각 관련하여 수입부분의 고정자산수입과 지출부분의 투자와 기타자산 항목으로 각각 다른 항목에 기 재된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실제 들어온 금액만 수입으로 책정할 수는 없는지 그 이 유를 질의하다.
- (51) 예산팀장은 목동의학관 관련 부분은 교육부와의 수차례 협의 후 최종 공문으로 지침받은 사항이며 지침에 따라 총액으로 표시한 후 미지급된 대금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 이라고 답하다.
- (52) 기획처장은 작년 세무조사 후 추경에 반영했던 세금부분을 결산에 미반영한 이유와 관련 하여 현재 이의신청 중이며 추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확정되면 발생주의에 따 라 2022학년도의 집행으로 반영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목동의학관 관련하여 학교 교비 전 출부분이 추후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의 안내대로 '처리했음을 부가 설명하다.
- (53) 김정권 평의원은 김준희기금 관련 기부주식매각을 하지 않고 평가금액으로 보유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를 질의하다.
- (54) 기획처장은 주식으로 보유하는 방안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사결정을 통하여 주식보다는 현금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매각하였다고 답하다.
- (55) 예산팀장은 기부받은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김준희기금의 경우 비 상장주식으로 매각이 가능한 시점에 매각하여 52억원으로 현금화 하였고 이는 기부자도 원하는 방향이었음을 부연설명하다.
- (56) 기획처장은 주식으로 보유하여 추후 평가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매각하였다고 부연설명하다.
- (57) 김세완 평의원은 기금별 적립인출 잔액 기타증감 부분의 전체투자기간 수익률 1.56%에 대해 질의하다.
- (58) 기획처장은 해당 상품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처분손실 12억원을 차감한 후의 최종 결과이 며 전체 기금의 수익률이 아니라고 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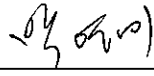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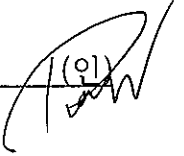
(59)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이 있는지 묻고 2021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22년 4월 19일

의 장 박 영 미

  
\_\_\_\_\_  
 (인)